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송문제 즉위 이십삼년이라. 이찌 시절이 티평하야 ㉠ 스방의 일이 업고 빅성이 평안하야 격양을 일습더니 월명년 추구월 병인일의 문제 충열묘의 거동하 실시 원리 충열묘난 만고 충신 묘정인의 묘라.

[A] 승상 묘정인이 이부상서시에 황제 즉위 십년이러니 불의에 남난을 당하야 사즉 위티하미 구완홀 ㉡ 모척이 업서 송실 옥시와 문제를 모시고 경화문을 나 무봉티을 넘어 광임교를 다드르니 성외성년에 곡성이 진동하고 남녀노소 업시 저도히 도망하니 남산북악이 봄 안인 오식도화 만발함 갖더라. 승상이 문제를 모시고 총망이 도망하니 피란하는 스람이 뵈홀 더뵈는지라. 뇌성관 일빅 오십이를 가자고 잇튼날 또 발행하시다. 이적의 승상이 문제를 모시고 스방을 두로 달니여 청병을 어더 삼삭만의 남난을 소멸하고 사즉을 안보하니 문제의 은덕은 천지 갖고 승상의 충렬은 일월갓튼지라.

문제 묘승상으로 정평왕을 봉하시니 구지 사양하고 밋지 안이허거늘 문제 마치 못하야 금주광록티후 좌승상을 하시고 그 부인 왕씨로 공녕부인을 봉하시다. 이러구러 세월을 보니더니 시운이 불행하야 고도지에 양궁을 장하고 교퇴스에 주구를 평함 갓튼지라. 이적의 간신이 시귀하야 우승상 이두병이 참소하물 보고 승상이 음약하야 죽으니, 문제 이통하사 계문지어 조상하시고 충렬뵈을 지어 화상을 글여 녀코 시시로 거동하시더니, 이날 또 거동하사 화상을 알묘하시고 넷날을 심각하사 비회를 금지 못하시니 병부시랑 이관은 이두병의 아달이라. 시위하엿다가 복지주왕 시신 중의 엇지 묘정인만하 신하 업소와 옥면의 비회 가득하시니 신조 도리에 엇지 충렬묘라 하시릿가. 이후는 거동을 마르시고 충렬묘를 ㉢ 회파하여지이다. 황제 불운하사 이관을 추고하라 하시고 종일토록 유하오서 석양의 환궁하신 후 묘승상부인을 더 승품하야 덕녕부인을 봉하고 금은 만이 상스하시며 하교하시되 니 들으니 묘정인의 아달이 잇다하니 ㉣ 인견하야 ㉤ 울도지경을 덜게 하라 하시다.

왕부인이 잇티 칠삭만의 승상을 여히고 십삭을 츠와 히복하미 활달한 괴남지라. 일흠을 웅이라 한다. 부인이 팔년 거상의 소복을 벗지 안이하시고 그 아들 웅을 의지하야 세월을 보니더니 이날 황제 충열묘의 거동하시다 하미 더욱 슬허하더니, 환궁하신 후 명광이 나와 정녕부인 가즈와 상스하신 금은을 드리거날 부인인 황궁하야 계하의 내려 국궁하야 밋자와 노코 황궐을 향하야 국궁 스비하고 명관을 인도하야 외당의 안치고 황은을 치스하더니 또 웅을 인견하라 하시난 ㉥ 피초을 보시고 더욱 황궁하야 웅을 보닐 시 웅이 나히 비록 칠세나 얼굴이 관

옥 갖고 음양진퇴난 어룬을 압두하난지라. 명관을 썩라 옥계하의 다드라 국궁하니 상이 오리 보시고 디춘왕 충신지조난 충신이요 소인지조난 소인이로다. 니 오날날 네 거동을 보미 충효의 버셔나지 안이하니 엇지 아람답지 안이하리요 또한 나히 칠세라 하니 티즈와 동갑이라. 더욱 스랑하도다 하시고 인하야 티즈를 인견하셔 하교하시되 저 아회난 충신 아모의 아들이라. 너와 동갑이요 또한 충효를 겸하여시니 타일의 국수를 도모하라. 짐이 망팔 쇄년의 협정지인을 어더시니 엇지 즐겁지 아니하리요 하신디 티즈도 즐거하시더라. 웅이 다시 복지주왕 하교지하의 극기 황궁하오나 소신이 나히 어리웁고 또한 ㉦ 국체즈별하오니 엇지 벼살 업습는 녀가 아회 꺾니에 거쳐하올잇가. 국정의 극기 미안하웁고 또 국시지중하웁거늘 이제 폐하 어린아회를 디하웁서 국수를 으논하웁시니 엇지 두렵지 안이하리잇가. 복원 폐하난 소신이 물너가와 입신 후의 다시 현알하오리다 하며 극기 간하니 상이 들으시고 비록 어린아히 말이 나 스체 당년하지라. 다시 보시니 극기 엄숙하지라. 양구의 왕네 말이 가장 올흔지라. 그리하라 하시고 다시 하교왕네 나회 십습세 되거던 품직을 니릴 거시니 그찌을 지다려 국정을 도으라 하시니 웅이 스비 하직하고 나와 티자게 하직하니 티즈도 못니 년년하시더라. 이적의 천조 조신을 모와 조웅을 ㉧ 칭찬하시고 가로스디 시신 중의 이관은 어디 잇는요. 제신이 다 이관의 형세를 두려워 하는지라. 우승상 최식이 주왕 폐하 충렬뵈의 거동시에 추고하엿삽기로 파교의 잇난지다. 황제 꺾다르시고 침음양구의 왕 제 말이 잠간 경홀하나 아직 용서하라 하시다.

원리 이두병은 아달이 오형제라. 벼살이 다 일품의 거하고로 만조제신이 다 형세를 두려 이관등 말디로 하는지라. 이날 황제 조웅 스랑하심을 보고 이관이 크게 근심하야 의논왕 조웅이 벼살하면 그 부의 원수를 심각하련이 엇지 근심되지 안이하리요 하고 모다 계교을 의논하더라.

이제 웅이 집의 도라와 부인게 뵈온디 부인이 즐겨 문왕네 황상을 뵈온다. 웅이 디왕 입시하웁거늘 디면하야 뵈와나이다. 부인왕 황상을 디면하니 두렵지 안이하며 응당 못잡난 말삼이 잇슬 거시니 엇지 디답한다. 웅이 엿조오디 문답은 이러이러 하던 말삼과나히 십습세 되면 품직하리라 하시던 말삼이며 티즈 스랑하신 말삼을 낫낫시 고하니 부인이 일히일비하야 왕황상의 너부신 덕택이 여천여히라. 갑기를 의논치 못하련이와 네 만일 벼살하면 응당 잡필 거시니 엇지 하려 하난다. 웅이 왕 모친은 녀예치 말소셔. 스름의 스심은 지천하웁고 영육은 지수하오니 엇지 녀네 잇소오며 또 남의 조식이 되여 엇지 ㉨ 불공디천지수을 목전의 두고 그져 잇소올잇가. 부수를 갑조하오면 무슨 모척을 어더야 갑스을 거시니 북망 모친은 조

곰도 넘네치 말으소서. 하고 설파의 모조 서로 통곡하니 그 정상이 촘촘히더라.

이제는 병인년 납월 납일이라. 황제 명당의 전좌하시고 만조 제신을 다 조회 바드시고 국수를 의논할 시, 상이 왈 오회라. 짐의 년광이 망팔쇠년이라. 세월이 스름의 죽음을 지촉하고 동궁이 아직 어린이 국수 7장 망년한지라. 경등의 소견의 엇지하여야 짐의 근심을 덜이요? 제신이 주왕 흥망성쇠는 임으로 못하련니와 국수 아직 장원하옵거늘 엇지 동궁의 어리심을 근심하신잇가. 네부상서 정충이 출판주왕 폐하 춘추 만히 심과 동궁 어리시물 엇지 근심하신잇가. 승상 이두병이 잇스오니 전두국 소난 죽키 근심이 업스오리다. 조정이 또한 두병의 권세를 두려하느니라. 일시에 주왕 승상 이두병은 진국 소무와 갓튼 신하라. 엇지 국수를 근심하릿가. 상이 오히려 그러이 너기시나 그러나 정영이 맞지 안이하시더라.

[B] 이날 진시에 경화문으로 난디업는 빅호 드러와 꺾니의 형형하거늘 만조빅관과 삼천궁졸이 황겁하야 아모리 할 줄 모로더니 이윽고 궁녀 하나을 물고 후원으로 뛰여 다라나더니 인하야 간디 업거늘 상이 디경하야 제신다려 무르시니 조신이 또한 아지 못하고 궁중과 장안이 요동하야 니두 길흉을 아지 못하더라.

황제 일노써 근심하스 침식이 불평하시니 제신이 주왕 수일 북풍이 디취하고 저히 남은 빅설이 손야을 땀퍼습기로 여러날 주린 뱀이 의지하할 곳 업슬 뿐 안이라 기갈을 견디지 못하야 빅주의 니다라 갈 곳 업서 숨폴만 녀겨 왓스오니 폐하 엇지 글노써 근심하신잇가. 황제 마음을 노으시나 ㉔ 지변인줄 짐작하시더라.

## 01

어휘의 문맥적 의미 · 객관식

밑줄 친 ㉑~㉔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한다.
- ② ㉒: 남을 해치기 위해 몰래 꾸며낸 사악한 음모를 의미한다.
- ③ ㉓: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직접 만나 보는 것을 의미한다.
- ④ 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공식적인 보고서나 상소문을 의미한다.
- ⑤ ㉔: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않게 함을 의미한다.

## 02

내용의 세부적 이해 · 객관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웅은 황제와의 대면에서 자신의 나이가 어림을 근거로 관직 제안을 거절하였다.
- ② 황제는 조웅이 태자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더욱 가깝게 여기며 총애하였다.
- ③ 이관은 조웅이 황제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가문에 미칠 화를 우려하였다.
- ④ 왕부인은 황제가 내린 금은보화를 받고 황궐을 향해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⑤ 황제는 조웅의 비범한 기상을 확인한 후 그에게 즉시 높은 품직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 03

인물의 심리 및 논리 분석 · 객관식

조웅이 황제의 관직 제안을 사양하며 내세운 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이 아직 연소하여 국가의 중대한 일을 논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함을 강조하였다.
- ② 벼슬이 없는 어린아이가 궁궐 내에 머무는 것은 국가의 법도에 어긋남을 지적하였다.
- ③ 황제가 어린아이와 국사를 논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위태롭게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 ④ 학업에 정진하여 훗날 스스로의 힘으로 입신양명한 뒤에 다시 벼짚다는 포부를 밝혔다.
- ⑤ 태자와의 신분 차이를 고려할 때 동갑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거처하는 것은 불가함을 역설하였다.

## 04

표현의 의미와 기능 · 객관식

밑줄 친 ㉕ '울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신을 잃은 황제의 깊은 슬픔과 답답한 심경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 ② 간신들의 참소로 인해 정치가 어지러워진 상황에 대한 분노를 상징한다.
- ③ 조웅의 비범함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황제의 자책을 의미한다.
- ④ 태자가 아직 어려 국사를 맡기지 못하는 황제의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조승상의 부인이 겪고 있는 빈곤한 생활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

## 05

서술상 특징 파악 · 객관식

### [B] 부분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현실적인 사건을 제시하여 앞으로 전개될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공간적 배경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심리적 방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며 독자를 설득한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여 현재 발생한 사건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 06

사건의 인과적 이해 · 객관식

### 이관이 황제에게 '충넬묘를 회파'하자고 건의한 표면적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정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뒤늦게 밝혀져 신하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 ② 황제가 한 명의 신하에게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슬퍼하는 것이 군주의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 ③ 충넬묘의 위치가 궁궐의 기운을 막아 국가에 불길한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④ 이두병을 비롯한 다른 충신들의 공로가 조정인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 ⑤ 백성들이 황제보다 조정인을 더 숭상하게 되어 황권의 위엄이 실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 07

외적 준거에 따른 종합적 감상 · 객관식

###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충(忠)'은 단순한 복종을 넘어, 군주와 신하 사이의 인격적 유대와 국가적 안녕을 위한 헌신을 포괄한다. 특히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의 부친은 대개 간신에 의해 희생되는 '비극적 충신'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주인공이 훗날 '복수'와 '충성'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게 만드는 서사적 동력이 된다. 또한 군주가 충신의 자녀를 돌보는 행위는 충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세대를 통한 국가 질서 회복의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간신 세력과 의 필연적인 갈등을 유발하며 서사의 긴장을 유지시킨다.

- ① 황제가 조정인의 화상을 보며 비회를 금치 못하는 것은 신하와의 깊은 인격적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② 이관이 충넬묘의 회파를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인 조웅과 황제의 결합을 차단하려는 간신 세력의 견제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조웅이 칠세의 나이에도 엄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차 국가 질서를 회복할 영웅적 기상을 내포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조웅이 '불공대천지수'를 언급하며 통곡하는 것은 부친의 희생이 조웅에게 복수라는 서사적 과업을 부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⑤ 황제가 조웅에게 13세에 품직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간신 이두병의 권세를 억제하기 위해 조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겠군.

## 08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 · 객관식

### 조웅을 만난 전후로 변화된 황제의 심경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조정인을 잃은 상실감과 비애 → 조웅을 통한 위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
- ② 간신들의 참소에 대한 분노 → 조웅의 영특함에 대한 놀라움과 경계심
- ③ 자신의 노쇠함에 대한 한탄 → 조웅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는 즐거움
- ④ 국가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 → 조웅의 거절로 인한 실망감과 배신감
- ⑤ 태자의 미성숙함에 대한 걱정 → 조웅과의 경쟁을 통한 태자의 성장 기대

## 09

세부 사실의 확인 · 객관식

[A]에 나타난 조정인의 행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의 상징인 옥새와 황제를 보호하며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였다.
- ② 적들의 추격을 피해 무봉태를 넘고 광임교에 도달하는 긴박한 여정을 거쳤다.
- ③ 전란 중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함으로써 적군에 맞서 싸웠다.
- ④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청병을 통해 삼 개월 만에 난리를 진압하였다.
- ⑤ 전란을 수습한 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황제로부터 정평왕에 봉해졌다.

## 10

인물의 말하기 방식 · 객관식

황제의 고민에 대한 '제신(신하들)'의 답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의 실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아첨 섞인 말로 황제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고 있다.
- ③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여 현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 ④ 황제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자책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인다.
- ⑤ 상반된 견해를 가진 신하들이 논쟁을 벌여 황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11

소재의 상징적 의미 · 객관식

밀줄 친 ㉠ '지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이변을 의미한다.
- ②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의 굴레를 상징한다.
- ③ 통치자의 덕망이 부족하여 하늘이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 ④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장차 큰 변란이 일어날 것임을 알리는 징조이다.
- ⑤ 내부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황제가 비밀리에 계획한 심리전의 일환이다.

## 12

인물의 특징 파악 · 객관식

조웅의 출생 및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친인 조승상이 이두병의 참소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태어났다.
- ② 왕부인이 태몽을 꾸 지 십 개월 만에 태어난 비범한 인물이다.
- ③ 부친을 여인 후 팔 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상복을 입고 지냈다.
- ④ 일곱 살의 나이에 이미 성인 남성을 압도할 만큼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 ⑤ 황제로부터 태자와 함께 궁궐에서 교육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

## 13

인물 간 관계의 통합적 이해 · 객관식

황제가 이두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정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신하로 인정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 ② 그의 권세가 너무 강해져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조웅을 통해 제거하려 한다.
- ③ 신하들의 칭송에 따라 그를 충신이라 여기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 ④ 조정인을 죽게 만든 장본인임을 확신하고 복수의 기회를 잡기 위해 겉으로만 우대한다.
- ⑤ 자신의 노쇠함을 보완해 줄 유일한 적임자로 생각하여 태자의 스승으로 삼으려 한다.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조웅'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전통적 영웅 서사에서 주인공의 '조속함'은 단순히 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天命)을 자각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체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장치이다. 특히 어린 주인공이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장차 도래할 새로운 정의의 시대를 예고하는 쾌감을 제공한다. 이때 주인공이 내세우는 '명분'은 사적인 욕망이 아닌 공적인 도리(道理)에 기반해야 하며, 이는 주인공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 ① 조웅이 황제 앞에서 '국체자별'을 논하며 관직을 거절한 것은 공적인 도리를 우선시하는 영웅적 면모의 발현이겠군.
- ② 칠세의 조웅이 어른을 압도하는 예절을 갖춘 것은 그가 유교적 가치관을 이미 체화한 비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조웅이 어머니에게 '사생은 재천'이라며 안심시키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확신과 천명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조웅이 부친의 원수를 갚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은 사적인 복수심을 공적인 정의로 승화시키려는 영웅의 고뇌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⑤ 황제가 조웅의 말을 듣고 '사체 당년하다'며 감탄한 것은 조웅이 내세운 명분이 군주가 보기에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을 완전히 파괴하여 흔적을 없애려는 강한 부정적 의도를 담고 있다.
- ② ㉡: 인물의 내면에 쌓인 해소되지 못한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를 비유한다.
- ③ ㉢: 개별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보다 국가적 기강과 질서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 ④ ㉣: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관계를 나타내며, 인물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 ⑤ ㉥: 자연 현상의 우연한 일치를 통해 인물의 불안한 심리가 투영된 주관적 환상을 의미한다.